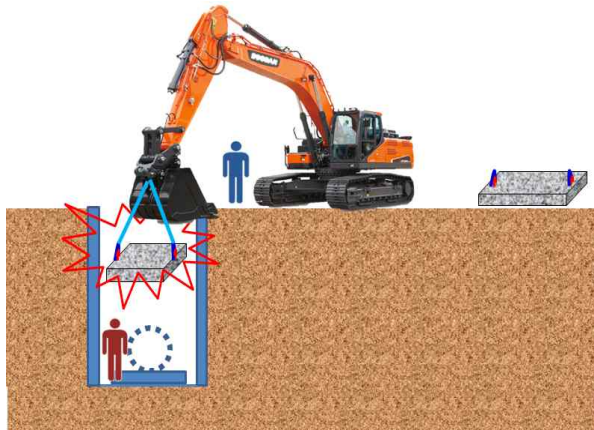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9.6.25.(화) 충북 음성군 소재 OO 공업용수도사업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(약 4톤)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바닥으로 내리던 중 인양용 고리가 파단 되어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강도가 부족한 인양용 고리 사용 및 고정불량
 -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된 인양용 고리는 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없는 철선을 사용하였고,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된 인양용 고리 중 철근은 한쪽 끝이 매입되지 않는 등 구조물에 고정되지 않음
- 중량물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
 - 굴삭기로 중량물(콘크리트 구조물)을 매달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양용 고리의 파단 등으로 화물의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안전성이 확보된 인양용 고리 설치
 - 중량물에 설치하는 인양용 고리 및 줄걸이 기구 등은 양중작업 중 파단 등 위험이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설치
- 낙하위험 장소에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
- 중량물 작업계획 수립에 따른 작업지휘
 - 작업 전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,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인양고리, 줄걸이 체결상태 점검 등 관리감독 실시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